

2020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제2회 청년13(일+삶)통장 수기공모전 작품집

우리들의 1(일)+3(삶) 톡톡

TALK!  
TALK!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다

청년13(일+삶)통장과 함께한 10개월 그리고..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다

온 마음으로 수기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청년13(일+삶)통장 제 2회 수기공모전

공모기간 2020. 5. 27. | 수 | ~ 6. 15. | 월 | 19일간

- 공모주제** ♦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이다.]  
- 청년13(일+삶)통장에 얽힌 이야기  
- 나의 생활, 기대 그리고 변화 이야기
- 응모자격** ♦ 광주 청년13(일+삶)통장 2~4기 만기 졸업자
- 응모형식** ♦ 청년 본인이 가장 표현하기 쉬운 형식 선택(제한 없음)  
- 영상&음악 : 동영상, 랩(녹음파일 및 가사) 등  
- 디자인 : 웹툰, 카드뉴스, 디자인 등  
- 작문 : 에세이, 시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약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수기파일
- 응모방법** ♦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 E-mail 접수 : dream137079@naver.com

시상금	대상	1명	30만원
	최우수상	2명	15만원
	우수상	3명	10만원
	장려상	5명	5만원
	특별상	10명	보해양조, 광주은행 후원
	참가상	00명	모바일 쿠폰

- 수상작발표** ♦ 2020. 6. 19.(금) 홈페이지 공지 및 입상자 개별 안내
- 유의사항** ♦ 접수된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귀속됨

## Contents

### chapter 1

## 청년들의 이야기

<p>10 - <b>대상</b> 청년_ 정아영</p>	<p>30 - <b>특별상</b> 청년_ 안혜원 청년_ 유셋별 청년_ 김지혜 청년_ 정덕이 청년_ 심은희 청년_ 김영동 청년_ J D M 청년_ 임상현 청년_ 서용찬 청년_ 임도희</p>	<p><b>참가상</b> 청년_ 김00 청년_ 최00 청년_ 박00 청년_ 이00 청년_ 정00 청년_ 손00 청년_ 나00 청년_ 선00 청년_ 손00 청년_ 정00 청년_ 오00 청년_ 김00 청년_ 문00 청년_ 김00 청년_ 선00 청년_ 김00 청년_ 양00 청년_ 김00 청년_ 윤00</p>
<p>12 - <b>최우수상</b> 청년_ 김아림 청년_ 정다운</p>	<p>16 - <b>우수상</b> 청년_ 김윤경 청년_ 이세련 청년_ 이수향</p>	<p>46 - <b>참가상</b> 청년_ 박00 청년_ 조00 청년_ 전00 청년_ 김00 청년_ 곽00</p>
<p>22 - <b>장려상</b> 청년_ 기희진 청년_ 김상민 청년_ 박설희 청년_ 정수영 청년_ 한유정</p>		

### chapter 2

## 덧붙이는 이야기

- 72 - 마음으로 보낸 편지
- 74 - 사업 운영현황
- 75 - 청년13(일+삶)통장 \_추가 지원사업 '더(THE)'드림 통장'

chapter 1

## 청년들의 이야기

# 청년13(일+삶)통장 수기 공모전 참가작

## 대상

청년 정아영 • 10

## 최우수상

청년 김아림 • 12

청년 정다은 • 14

## 우수상

청년 김윤경 • 16

청년 이세련 • 18

청년 이수향 • 20

## 장려상

청년 기희진 • 22

청년 김상민 • 24

청년 박설희 • 26

청년 정수영 • 28

청년 한유정 • 29

## 특별상

청년 안혜원 • 30

청년 유섯별 • 32

청년 김지혜 • 34

청년 정덕이 • 35

청년 심은희 • 36

청년 김영동 • 38

청년 J D M • 40

청년 임상현 • 42

청년 서용찬 • 44

청년 임도희 • 45

## 참가상

청년 박00 • 46

청년 조00 • 47

청년 전00 • 48

청년 김00 • 49

청년 곽00 • 50

청년 김00 • 51

청년 최00 • 52

청년 박00 • 53

청년 이00 • 54

청년 정00 • 55

청년 손00 • 56

청년 나00 • 57

청년 선00 • 58

청년 손00 • 59

청년 정00 • 60

청년 오00 • 61

청년 김00 • 62

청년 문00 • 63

청년 김00 • 64

청년 선00 • 65

청년 김00 • 66

청년 양00 • 67

청년 김00 • 68

청년 윤00 • 69

나를 돌아보는 시간!

대상  
청년 정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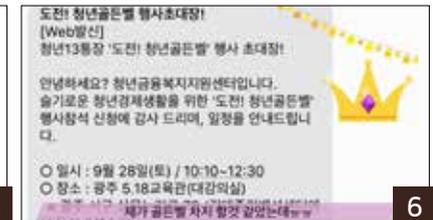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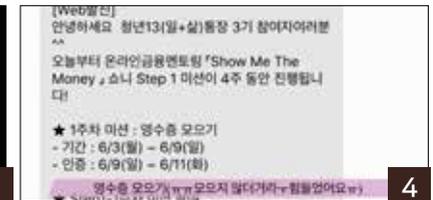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거울 이다



사고싶은건 많은데... 돈이 없네... 어떡하지 고민 하던중 도전 '청년13(일+삶)통장'  
나를 위해 적금하자 신청!! 짜잔! 청년13(일+삶)통장 꾸준히 저축하자~ 적금 시작!  
하나씩 적어가면서 나를 돌아보고 고칠 부분이 있을 때  
고칠 수 있게 기회를 주었어요!



작품을 보고싶다면 QR코드를 찍어주세요!



13통장의 행복

최우수상  
청년 김아림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빛 한줄기** 이다



마트에 가서 100원 더 싼 제품을 사~♪  
 백화점 구경 가서 인터넷 쇼핑을 해~♪  
 비싼 소고기집 냄새 맡고 무한리필 발걸음  
 그림에도 내 통장 0원~♪  
 은행 어플 키고 10만원 적금을 넣어  
 행복한 13통장 나에게 빛 한줄기  
 하루하루 버터가며 사는 내 삶  
 고마워요 일 삶의 행복~♪

ps. 13통장의 고마움을 표현해봤습니다.

덕분에 200만원이라는 돈을 얻게 되어 기쁘데

이 기쁨의 표시를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음치인 제가 부끄럽지만 작곡을 해 보았습니다

노래 못 부르더라도 봐주시고 제 마음을 가사에 전달했습니다!



작품을 보고싶다면 QR코드를 찍어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최우수상  
청년 정다운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기대 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정다운입니다.

저는 작년에 좋은 기회로 13통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13통장을 기회로 저의 소비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요, 금융 쪽으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정도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축한 돈으로 음악적인 장비들도 사서 저의 꿈에 한발자국 다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축, 즉 돈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기공모전에 제가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자작곡으로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기대" 라는 곡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작품을 보고싶다면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오랜 목마름의 해결

우수상  
청년 김윤경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오아시스** 이다

충청도 음성에서 광주로 발령이나 이사 온 지 반 년쯤 지난 어느 날, 아내가 13통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줬다. 충청도에서도 청년통장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었고 신청해보려고 하였지만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웠고 신청 기간도 훨씬 지난 후였다. 그리고 광주에 이사하고 도시 생활 적응에 애 먹던 중 접한 13통장에 대한 정보는 그야말로 사막에서 마주한 오아시스였다.

본업이 경제적으로 열악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로 했다. 아내는 중단했던 대학원을 다시 다니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나는 충청도에서 제대로 못해왔던 사진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알게 된 13통장은 “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간절함을 안고 여기저기 다니며 신청서와 필요 서류들을 추려 신청했다. 그리고 내 생일이 하루 지난 8월 22일에 “안녕하세요,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입니다” 로 시작하는 문자를 받았다. 예전 카투사 합격 문자를 받은 이후 나의 모든 운을 다 썼다고 여겼는데 다시 한 번 귀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1회차 10만원을 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혹시나 틀릴까 입금 전 몇 분이나 확인했으며 보낸 후에도 확인하지 못해 몇 번을 더 확인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2주를 보내고 드디어 통장 배부식 행사에 참여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도착해 있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빈 자리를 찾아 앉았다. 100만원을 넣으면 100만원을 더해서 돌려준다는 조건은 다시 생각해보고 믿기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저금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금을 한다 해도 다시 빼 쓰기 바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달 10만원씩은 꼭 만들어 저금해야만 했다. 사실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끝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행사가 끝나고 통장 배부에 앞서 내 이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때의 떨림만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런 떨림과 함께 100만원이 찍혀 있는 통장과 10만원이 찍혀 있는 통장 두 개를 안고 집에 돌아와 귀중품만 넣어두는 서랍에 고이 넣어 두었다.

아내는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모든 달 입금일인 20일에 동그라미를 쳐 놓았다. 그렇게 한 번도 안 까먹고 아내는 10만씩 꼬박꼬박 모았고 함께 손 잡고 은행에 가 통장 정리를 하며 기록을 찍어 나갔다. 그렇게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다시 새로운 기운으로 아내는 학교 갈 준비를 나는 웨딩사진 업체를 소개 받아 프리랜서로 일을 배우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거짓말처럼 코로나 19가 터졌고 결혼식들은 모두 연기되어 사진일은 더 이상 배울 수 없었고, 아내는 학교 한 번 못 가보고 인터넷으로 교수님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행히 아내는 학교를 못 가는 대신 급하게 신청한 공공근로에 선정되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나는 가사노동을 시작했다.

아내의 일터는 걸어서 5분 거리였고, 나는 아내가 출근하면 일어나 볏고 끓이고 지지며 점심을 준비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종종 다른 곳에서 사진 일이 들어 왔고 처음 해 보는 장르의 사진이어서 배워서 무조건 찍어 냈다. 다들 어려운 시기였고 우리도 어려웠으나 13통장은 재난긴급지원금만큼 믿을 구석이였다. 그만큼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다. 아내도 더 열심히 일했고 나도 5월이 되자 그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며 고생했던 결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광주에서 경기도에서 사진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웨딩 사진일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중고등 학교 졸업사진 일도 한 업체와 함께 하게 되었다. 사진일들이 많아 지다 보니 현재 가지고 있는 렌즈 하나가지고는 그 다양한 촬영들을 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었다.

5월달에만 사진 시작하고 처음으로 200만원을 벌었고 6월에도 예약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13통장 만기도 다 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200만원 수령 시 사용 계획에 대해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100만원은 카메라 렌즈, 나머지 100만원은 아내 학자금 대출금 갚는데 쓸 예정이라고 자랑스럽게 적어 제출했다. 그리고 6월 11일, 서울에 촬영 간 김에 5년 동안 간절히 바라던 70-200mm 렌즈를 결국 사고 말았다. 예산은 100만원에서 45만원이나 초과한 145만원이었다. 그동안 했던 “쇼미더머니” 미션을 충실히 이행한 1인으로서 이런 50% 이상의 초과 지출은 분명 마이너스 요소겠지만 예상치 못했던 추가수입이 생겼고 앞으로 사진일을 해나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투자라 13통장이 가져다 준 긍정적 기운으로 과감하게 구입했다.



누구에게는 이런 일들이 별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먼 종교인의 집안에서 자라온 나에게 이정도 금액의 소비 또는 꼭 필요한 투자라 할지라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고민은 두 달 가까이 했다. 처음 렌즈를 사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더 이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에 단렌즈를 알아보며 생겼다. 그러나 바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렌즈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는 단렌즈보다 나에게만 망원 렌즈가 더 필요함을 큰 고민 없이 깨달을 수 있었다. 작년에 한참 행사가 많을 때마다 망원은 옆에 있는 다른 기자나 작가에게 빌려야만 했고 그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그걸 어느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도 나의 이런 고민에 동감했다. 상의한 끝에 결국 망원 렌즈를 사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오면 아내의 학자금도 바로 갚아 버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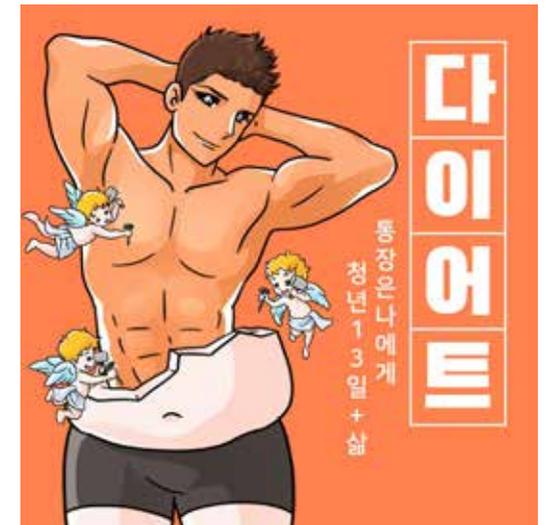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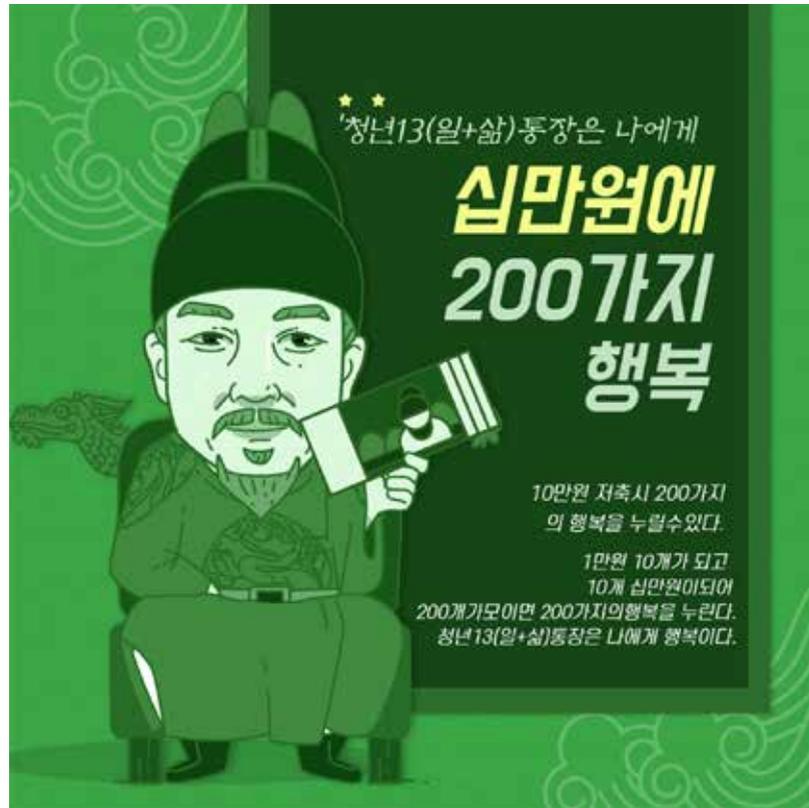
돌이켜보면 13통장 4기로 활동한 것이 단순히 매달 10만원을 저금하고 거기에 100만원을 더 주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었다. 10개월의 단기간이었지만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목표를 향해 계획을 세워 진행, 결국 성취해내는 경험을 하게 해 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매번 귀찮게 여겨졌던 미션들을 시간에 쫓기면서든 꾸역꾸역 기록하여 제출하고, 영수증을 모으고, 전혀 알 수 없지만 미리 지출 계획을 짜보고, 결산을 보는 과정들의 반복 속에서 나도 모르는 경제관념이 생겼다. 계획한 대로 돈을 모으고, 때가 되었을 때 집행하고, 다시 그 다음 목표를 세우는 그 과정은 앞으로 조금 더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보다 큰 금액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있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청년금융복지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시 한 번 머니클리닉 자료들을 찾아보게 된다.

이제 다음 목표는 자동차 구입이다. 장기 렌트, 할부 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머니클리닉에서는 이런 방법을 강경한 어조로 반대하고 있었다. “할부로 구입시 부채상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는 최악의 소비결정” 이니 5년 동안 2000만 원을 만들어 현금으로 구매할 것을 추천하고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13통장에서의 배움과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 차를 사는 그 날까지 다시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다.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왔었다는데 다시 한 번 너무나 감사하다.

10만원에 200가지 행복 - 배부름, 다이어트

우수상  
청년 이세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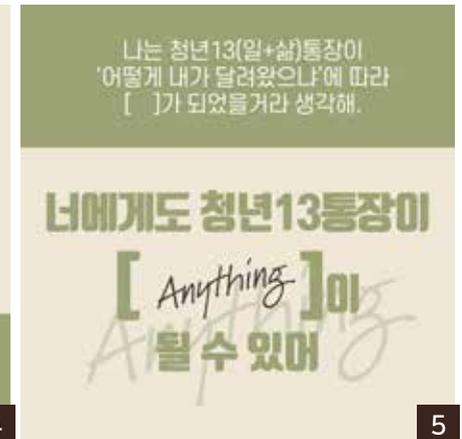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행복 이다



나에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 Anything(무엇이든)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Anything 이다

우수상  
청년 이수향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

장려상  
청년 기획진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 이다

저는 몇년 전 이유를 알수없는 어지럼증과 기침으로 고통받다 큰 병원에까지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불명의 천식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전 천식이 단순히 기침 증상 정도로만 알고 있던 제게 이 병은 제 일상 생활에 너무나도 큰 피해를 주었고, 결국 집 밖에서사는것조차 저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조차 시도때도 없이 기침이 나와 밥을 먹기도 어려웠고, 어지럼증에 화장실에 가기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차도가 보이지 않아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 병이 낫긴 할까?, 이렇게 고통을 느끼며 집에서만 갇혀 지내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고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채소와 과일이 천식이 도움이 된다는 얘길 듣고 낫기 위해 안해본 방법이 없던 저는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처럼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증상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도 하지 못하며 부모님께 의존해 지냈던 저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몸이 회복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고, 그렇게 열심히 채식을 실천하여 아르바이트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여 다시 몸이 안좋아질수도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엔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업 등 여러가지를 찾아보며 제가 배우고 싶은일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번 급여로 학원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비싼 학원비는 아르바이트 급여로는 넉넉치 않았지만 앞으로의 희망이 있으니 이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청년13통장, 학원을 다니면서 빠듯한 형편이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조금 참고 아껴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저는 또다시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건강하시진 않더라도 크게 아프신데가 없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암 판정은 제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다며 지금 상황에선 수술은 어려우니 큰 병원가서 바로 치료를 받아보라고 했고, 저는 그자리에서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역장이 무너진다는게 이런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도 컸던 건지 저의 나아가던 천식도 다시 악화되어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을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보단 어머니의 상황이 더 위급하다 느꼈고, 제가 곁에 없으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사람이 없었기에 저의 입원은 미뤄두고 간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암이란 병은 무서웠습니다. 지니고 계신 어머니도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 또한 말하지 못할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정말 암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혼자 600이 다되가시는 연세에 홀로 저희집의 생계를 책임지시기엔 너무나 버거우셨고, 나가는 병원비만 해도 어려운 살림살이였습니다. 저에게 청년13통장으로 달달이 10만원씩 나가는 지출도 버거워지게 되었고 포기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겐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천식에 걸렸을때도 많은 힘을 주던 친구들이었는데, 어머니 소식에 조금 널널하며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고 반찬이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선물해주었습니다. 또 지금 상황으로 생계가 힘드니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 받아보면 좋을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었고, 다행히 정부의 도움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쉽지 않았을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힘써주니 이겨나갈수 있었습니다. 기쁨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주저 앓고 싶었을 때에도 제가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나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라는 생각으로 일어설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병원에서 쓴 약이 효과가 좋아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고, 제 건강도 다시 회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치료해 나가야 겠지요,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비록 또 다시 절망이 찾아와 저와 가족들을 무너뜨리려 할 수도 있겠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불안감이 덮쳐올 때도 있고, 밤에도 깊이 잠들지 못해 힘들때도 있지만 저는 분명 지금까지 이겨왔던것처럼 앞으로도 이겨나갈수 있다고 믿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13통장도 끝까지 참여 했는데, 앞으로도 분명 힘든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겨나가다 보면 청년13통장 같은 좋은 선물들을 만날수 있지 않을까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밤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저를 인도해준 이 희망이라는 빛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많은 도움들을 간절히 필요로하는 누군가에게 꼭 전할때까지, 저는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청년들의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미래비전 및 자존감상승을 지원해주는 유익한 청년13(일+삶)통장

장려상  
청년 김상민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피톤치드**이다

**1. 첫 사회생활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가정채우, 학자금, 생활비 문제에 직면하다.**

저는 2019년 01월부터 04월까지, 저는 모전산센터에서 취직하였습니다. 신입임에도 열의를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적응하려고 인사시작일부터 매주아근과 매주말을 반납하면서도 업무를 배워나가고 임했지만, 실무에서는 제 노력 이상의 성능수준과 단기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관계자들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저의 기술적 & 역량적 부족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었으므로, 결국 반자발적인 사의를 표명하였고 저의 전공분야에서 첫 번째 사회생활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의 실패에는 저에게 또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의 커리어가 끊어지는 문제도 중요했지만, 저희집 안은 아버지께 의해 상당한 가정채우가 존재하였고 제 명의의 학자금대출건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해진 심적부담감을 가졌었으나, 이미 떨어져버린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사회생활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3달간의 방황기를 겪고, 우연한 계기로 다시 모교로 돌아와 자신감상승과 사회적응, 전문성함양 등을 위한 과정으로 청년TLO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시절에는 컴퓨터공학과 경영학의 복수전공, 우수한 성적(4.16/4.5)과 다양한 교내/교외활동, 수상경력 등에 나름 열정적인 학생이었으므로 이번의 취업기회를 통해 재도약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19년 08월 01일 저는 조선대학교 청년TLO인턴연구원으로 임용되었고, 조금씩 인턴활동에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경험과 연구활동을 수행하다보니 낯설거나 어려움은 없었지만, 짧은 인턴기간의 미리 계약한 급여수준은 가정채우, 학자금대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2. 청년13통장제도를 접하다.**

이러한 고민을 실시하고 있던 찰나에, 교내의 게시판에서 '청년13통장 4기'의 포스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의 목적은 매달 10만원 \*매월 10개월을 적금하면, 원금(100만원)+이자(100만원)를 제공하는 광주시 청년들의 금융의식과 경제관념, 재무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복지제도였습니다. 은행이자도 1~2%로 초저금리시대에, 원금대비 100%의 이자를 수혜받을 수 있다는 일확천금같은 기회가 담긴 포스터를 접한 뒤, 저는 기관담당자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격요건이나 정확한 정책사유 등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경쟁률 3:1을 뚫고 저의 접수번호 157번은 최종선발자 320명 중 한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복지제도에 선발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13통장 4기' 활동에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3. 청년13통장의 활동과정**

청년13통장을 배부받고, 저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금융멘토링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쇼미더머니(1단계 STEP 4주 + 2단계 STEP 4주과정)미션에서는 지출성향파악과 지출예산계획설정을 전문멘토분의 지도하에 차근차근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엔 금융어플리케이션(TOSS)을 사용해보았고 자동화된 카드정산기능이 있어서 소비지출분석의 경향성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경영학부에서 회계와 재무관리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계정과목과 경제관념에 대한 지식은 사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의 일상 속의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기준으로 소비지출패턴을 파악하고, 저의 잘못된 가계부 작성법이나 충동소비 및 과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면서, 소비지출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월간/연간 지출예산계획을 통하여 미래의 잠재적인 지출요소를 확인하여, 저만의 재무포트폴리오를 형성시켜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역량강화지원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13통장 4기'의 근로역량강화지원프로그램은 자격증이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광주은행 기프트카드 10만원을 생성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제가 청년TLO로 임용이 되었지만, 계약직신분이었고, IT전공자로서 전 직장에서 실패했던 점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부족했던 요소를 심도깊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인 IT자격증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사필기' 교재, '정보인기기사필기' 응시료, '2020 ADSP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교재, 'SQL 자격검정 실전문제' 교재 등을 유용하게 구입하여 사용하여 올해 05월~06월간 자격증시험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축사용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08월부터 정기적금통장을 개설하고 2020년 05월까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저축사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는 대출금상환과 규칙활동금, 가족행복건강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저축사용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청년13통장 트렌드역량강화교육으로 유튜브크리에이터양성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곳에서 유튜브시장의 동향과 목적, 기초이론, 유튜브편집실습 등을 진행하면서, 유튜브크리에이터로서 기본소양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기시험을 응시하여, '유튜브크리에이터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4.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저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돈과 안정된 양질의 직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기초적인 인성교육 및 비전과 발전가능성,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실패나 좌절에서도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청년복지인프라형성과 관련한 가능성으로 패배주의적인 사회적인 인식과 극기주의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청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국가와 사회시스템이 지원해야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피톤치드처럼 청년들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해로운 콘텐츠와 유혹에서도 벗어나거나, 몇 번의 실패나 좌절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청년힐링 및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사회생활에서 실패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청년13통장 4기' 프로그램에서 피톤치드처럼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멘토분들과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의 임직원분들의 격려와 배려성담으로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5. 마무리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금을 넣어본 적이 없었는데, 매달 10만원의 청년13통장 적금을 납입하면서 적금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경제멘토님의 가계부작성요령, 효율적인 소비습관을 이론과 실무를 통해 작성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10개월간 만기기간동안 누락되지 않고, 성실하게 납입했던 제 스스로에게도 뿌듯한 마음으로 격려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돈이란 정말 10원어치도 귀중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가치있는 재화입니다. 이러한 재화를 축적시켜서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전환시켜주시는 광주광역시정책팀과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또 저에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청과 지원하였으며, 세월이 흘러 제가 장년층이 될 때에는 청년시절의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의 유익한 제도를 참여한 기억을 되살려 다가올 미래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기부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면, 더 강한 마음가짐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저도 누군가에게 피톤치드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청년 13통장(일+삶)이란...?

장려상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생활 속 일상** 이다

청년 박설희



13통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루하루 뜻깊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즐거운 시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보니, 더 의미 있는 청년 13통장과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번에 만든 이 영상은 저의 모든 일상을 담은 영상입니다. 13통장을 통해 경제적인 습관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3통장과 함께하는 작은 일상 속 영상! 다른 만기자들과 현재 진행하고있는 분들께도 가볍게 볼수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을 보고싶다면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장려상**  
청년 정수영

**사랑하는 당신에게**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효도** 이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언젠가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  
이거 먼저 사고 저거 먼저 사고  
내 코가 석자라는 좋은 핑계

언젠가 보람이 있겠지 언젠가  
이거 먼저 해주고 저거 먼저 해주고  
내 코가 석자여도 내 새끼 먼저

미루고 미루던 효도  
일삶통장 만나 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10개월 동안 차곡차곡 사랑 담아 바칩니다  
60년을 사랑해 준 당신에게

ps. 어머니 환갑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시던 김치냉장고를 사드릴 예정  
입니다. 평소에 큰 선물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일삶통장을 통해 해드릴 수 있어 기쁘  
네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

**장려상**  
청년 한유정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 이다



인생은 마라톤처럼

특별상  
청년 안혜원

청년13(일+살)통장은 나에게 8월의 크리스마스 이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과 함께 그토록 원했던 나의 8월의 휴가도 다가왔다. 퇴근 후에 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출근 안한다는 생각에 어찌나 설레었는지 모른다. 이게 얼마만의 휴식이냐며 여행이 아닌 일과 사람에 치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지친 몸도 내 마음도 잔뜩 들떠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다가오자 짐을 잔뜩 들고 부산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처음 가보는 부산이라 눈앞에 펼쳐진 높은 빌딩과 금색으로 된 빌딩 말로만 듣던 해운대, 사진으로만 보던 광안리 등 짧은 시간에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 더위에도 열심히 돌아다녔었다. 그리고 녹초가 되어 숙소에 돌아와 핸드폰을 봤을 때 문자가 와있었다. 무심코 보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뛰쳐나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여행에 와서 이런 선물까지 받아도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었다. 3번의 시도 다 실패했기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하고 넣었는데 청년 일+살 통장에 당첨되었다는 그 문자가 나에게 얼마나 꿈만 같았던 일인지 모른다.

여행 온 첫 날, 4기 선정되었다는 그 문자도 나에게 아직도 잊지 못할 8월의 크리스마스이다. 만약 내가 계속 시도해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그 기회도 나에게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기에 청년 일+살의 미션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처음에는 영수증을 모으고 나의 지출내역들을 하다 보니 어느 샌가 나의 불필요한 지출내역들이 보이면서 후회가 따라왔었다. 굳이 살 필요가 없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비싸서 고민해왔던 옷, 신발들 일주일에 3번은 먹어야 하는 떡볶이, 스트레스 대 폭발 할 때마다 먹어 줘야 하는 투썸 케이크까지 불필요한 소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다음 미션 때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번 남은 월급통장을 보면서 돈으로 사람을 계산하고 돈에 스트레스 받으며 일을 해왔는데 불필요한 소비들을 차츰 차츰 줄여가며 쟁여놓는 습관도 고쳐나가니 통장에도 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10개월간의 기나긴 마라톤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지금은 쉬어갈 줄도 아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러다 이 여유가 오래 갈수록 나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마라톤은 잠깐의 쉼은 허락하지만 오랜 쉼은 허락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걸어야 하고 슬슬 속력을 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 포기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찾아온 위기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팡팡 써버렸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내 분은 풀리지가 않았고 이렇게까지 다녀야 하나 싶을 고비가 왔을 때 나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청년 일+살의 시작으로 몇 번의 고민이 있었다. 당첨되었기에 2년을 생각해왔는데 추가로 이것만 마무리할 때까지 다녀보자 했지만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생각이 컸는지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10만원씩 저축을 하면서 내가 10개월의 이 마라톤을 끝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필요 없는 소비들을 더 줄여나가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만족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 순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겨졌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기에, 10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마라톤은 어느 새 끝에 다다랐지만 나는 새로운 도전을 두고 다시금 출발선에 서보려고 한다.

지난 10개월 동안 소비에 대해 즐기고 변화한 내 모습이라면 남은 내 일생동안의 마라톤은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하며 내 비전을 위해 사용해보려고 한다. 그동안 먹을 걸로 써왔더라면 이제는 나의 발전을 위해 책을 사고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다시금 출발선에 서보려고 한다.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저 쓰느라 바빴었는데 청년 일+살을 통해 이제는 저축의 필요성과 월급을 타면 어느 정도 적금을 넣어야 하는지, 돈을 분배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이 생기게 되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생각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나날들이었다. 나의 10개월간의 마라톤이 끝이 나지만 내 바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겨주고 싶다.

그저 쓸 줄 밖에 몰랐던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불필요한 소비들을 바로 알고 잡는다면 매일 통장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나의 시작은 100만원을 적금하면 100만원을 더 준다는 그저 돈이라는 이유에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아닌 돈을 어떻게 쓰고 사용해야 하는지, 그로부터 오는 마음의 여유들이 새삼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마 청년 일+살 신청자들에게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쓸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그로부터 오는 삶의 변화들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기에 이 바통을 넘겨주고 이제는 나와 내 삶의 주제를 가지고 달려 나가려 한다. 훗날 더 좋은 내가 되어있기를 바라며 말이다.

효율적인 소비습관을 길들이다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가뭄에 단비** 이다

**특별상**  
청년 유셋별

광주시에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라는 청년비상금통장사업 안내를 보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서 신청했었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해 광주 청년13(일+삶)통장사업 신청 공고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한 후 2,171명으로 접수가 마감되고 이 중 450명을 선발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내가 과연 선발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며, 공개 추첨 방송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윽고 공개 추첨식을 통해 선정된 선정자와 예비후보자 명단을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고, 괜한 기대감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선정이 되어있어 너무나 놀랐습니다. 흔한 행운권 추첨이든 친구들이랑 사다리타기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불운의 아이콘이라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청년13통장 선정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니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믿어지지 않았는데 청년13통장 개설을 위해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하고, 통장 배부식에서 참석하니 실감이 났습니다. '아, 내가 선정이 되었구나!' 열렬한 기분으로 통장 배부식에 참석하여 유의사항 및 서약서를 낭독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행해야 할 미션들을 듣고, 앞서 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수들의 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머니클리닉'으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금융지식을 알게 되었고, 온라인 금융멘토링을 통해 각 스텝별 미션을 수행하면서 올바른 소비습관을 길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주차 미션으로 영수증 모으기를 했는데, 이는 평상시에도 하고 있던 습관이라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모으고 마지막에 지출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내역을 확인하니, 제 소비습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서 앞으로 사용할 금액들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면서 사용하게끔 되었습니다.

항상 돈을 사용했을 때 지출계획 이라게 없이, 당시 상황에 맞춰 쓰다보니 적금을 할 여유도 없었으며 당장에 닥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이런 잘못된 소비습관들도 인해 항상 여유자금이 없었던 저였지만 온라인 금융멘토링을 통해 한주, 한주 참여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제 지출내역에 남모를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완전하게 바꾸지 못했지만 기존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고 소비를 할 때 '정말 내가 필요한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출습관 뿐만 아니라 청년 13통장 참여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으로 '자기개발(근로역량)/심과 문화(생활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근로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평소 염두가 나지 않았던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어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차곡차곡 미션을 수행하고, 저축을 10회차를 완료 후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10개월 간의 저를 돌아보고, 저축만기금액으로 일부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마음을 짐을 덜며 제 삶의 한층 밝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푹푹한 삶속에 가뭄에 내린 단비같은 존재가 되었던 청년13(일+삶)통장은 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 지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되었고, 저축습관으로 인해 적금의 기쁨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의 기회가 많아져 기회가 닿지 못했던 다른 청년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을 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상**  
청년 김지혜

**효율적인 소비습관을 길들이다**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골조** 이다

광주시에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라는 청년비상금통장사업 안내를 보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서 신청했었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해 광주 청년13(일+삶)통장사업 신청 공고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한 후 2,171명으로 접수가 마감되고 이 중 450명을 선발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내가 과연 선발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며, 공개 추천 방송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윽고 공개 추천식을 통해 선정된 선정자와 예비후보자 명단을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고, 괜한 기대감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선정이 되어있어 너무나 놀랐습니다. 흔한 행운권 당첨이든 친구들이랑 사다리타기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불운의 아이콘이라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청년13통장 선정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너무나 믿어지지 않았는데 청년13통장 개설을 위해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하고, 통장 배부식에서 참석하니 실감이 났습니다. '아, 내가 선정이 되었구나!' 열렬한 기분으로 통장 배부식에 참석하여 유의사항 및 서약서를 낭독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행해야 할 미션들을 듣고, 앞서 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수들의 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머니클리닉'으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금융지식을 알게 되었고, 온라인 금융멘토링을 통해 각 스텝별 미션을 수행하면서 올바른 소비습관을 길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주차 미션으로 영수증 모으기를 했는데, 이는 평상시에도 하고 있던 습관이라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모으고 마지막에 지출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내역을 확인하니, 제 소비습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서 앞으로 사용할 금액들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면서 사용하게끔 되었습니다.

항상 돈을 사용했을 때 지출계획 이라게 없이, 당시 상황에 맞춰 쓰다보니 적금을 할 여유도 없었으며 당장에 닥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이런 잘못된 소비습관들도 인해 항상 여유자금이 없었던 저였지만 온라인 금융멘토링을 통해 한주, 한주 참여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제 지출내역에 남모를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완전하게 바꾸지 못했지만 기존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고 소비를 할 때 '정말 내가 필요한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출습관 뿐만 아니라 청년 13통장 참여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으로 '자기개발(근로역량)/쉽과 문화(생활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근로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평소 염두가 나지 않았던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어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차곡차곡 미션을 수행하고, 저축을 10회차를 완료 후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10개월 간의 저를 돌아보고, 저축만기금액으로 일부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마음을 짐을 덜며 제 삶의 한층 밝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푹푹한 삶속에 가뭄에 내린 단비같은 존재가 되었던 청년13(일+삶)통장은 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 지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되었고, 저축습관으로 인해 적금의 기쁨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의 기회가 많아져 기회가 닿지 못했던 다른 청년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을 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 이다

**특별상**  
청년 정덕이

**감사합니다**

나는 절약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생필품이 어디가 더 싸게 파는지 알고 있었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돈을 잘 아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싼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절약인 줄만 알고  
한 달동안 얼마나 소비하는지,  
어디에 소비하는지 적어볼 생각을 하지 않은 나는  
절약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됐습니다.  
나는 생각없이 소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소비하고, 얼마나 소비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하라고 떠미는 사람은 없지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기에  
저는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돈에서 독립하는 일상을 갖게 해 준 청년 13통장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도약** 이다

**특별상**  
청년 심은희

대학 졸업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 또래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시작해서 친구들보다 씽씽이는 커졌는데, 월급날만 기다리는 것은 여전했다. 다행히 카드가 연체된다거나 하는 등의 빚을 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겨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내가 먼저 쓰는 금액이 많았다. 일하느라 받는 스트레스는 항상 무엇인가를 사는 것으로 풀었고, 또 경조사는 많고, 그러다 보면 항상 월급 1주일 전에는 돈이 없어 월급날만 기다리는 날들의 반복이었다. 일은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월급이 들어오면 또 바로 사고, 또 돈이 먼저 떨어지고 하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다.

그러던 중 청년13통장을 시작하게 됐다. 당연히 그냥 돈을 줄 리가 없지. 달달이 10만원이나 저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영수증도 모아야하고 지출 보고서도 작성해야하고 지출 계획서도 작성해야하고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카드로 막 긁을 때는 몰랐는데 내 지출들을 시각화해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들이 많았다. 사고 나서 후회한 것들도 많았고, 필요할 것 같아서 샀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물건들도 있었다. 소니 미션을 계속 수행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많이 줄이게 됐고, 지출 계획을 짜면서 충동적인 구매도 많이 줄이게 되었다. 돈을 그냥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처음에는 저축했던 10만원 만큼의 돈이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10만원보다 훨씬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충동적인 구매를 줄이니까 오히려 필요한 물건들만 살 수 있게 되어서 물건을 사는 만족도도 높아졌다. 돈을 모으는 습관이 들어서 그동안 없었던 청약통장도 하나 개설했다. 아직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좋았지만, 그래도 모으는 재미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만기 직전, 200만원의 금액을 수령하면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예금통장에 그대로 넣어서 돈을 모아야 할까, 청약통장에 넣어서 청약 금액을 늘려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됐다. 10개월 동안 10만원씩 저축한다는 것이 은근히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13통장과 같은 기회가 이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했다. 사실 한 번에 쓰고 싶기도 했고, 그렇다고 한 번에 쓰자니 이제껏 모아놓고 써버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보니 제출하고 나면 상담전화 오면 전화가 온다고 되어 있길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사고 싶은 것들을 적어 보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전화가 오면, 당연히 '쓰는 것도 좋지만 이걸 목돈으로 해서 다른 저축을 또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사고 싶은 것 사고, 하고 싶었던 것 하면서 후회없이 다 써보라고 하셔서 놀랐다.

그래서 일단 쓰고 싶었던 것들을 꼭 적어보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청년 13통장이 만기되고, 돈을 수령하고 나니 너무 뿌듯했다. 그리고 항상 고민만 하던 라식수술을 하고, 애플워치를 샀다. 그냥 돈을 모으기만 했으면 힘들었을텐데, 돈을 모으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나니 오히려 무엇인가를 사야한다는 압박에서 훨씬 더 벗어날 수 있었다.

청년 13통장 만기 이후 그냥 막연하기만 하던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만기 수령 이후 지금까지 쪽 재테크 공부를 해 오고 있고, 이제는 월급날 전 보릿고개가 없어지는 여유도 생겼다. 신기하게도 여윌돈이 생기니까 오히려 돈에 대한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게 되고, 쓸데없는 소비도 훨씬 줄어들었다.

청년 13통장은 '무조건 돈을 모아야 된다' 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알려준 프로그램이다. 돈이란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돈에서 독립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청년13통장은 그냥 저축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 준 프로그램이다. 돈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돈을 조절하는 삶,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에 사용하고 필요한 것에 운용하도록 해 준 프로그램. 나에게 청년 13통장은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이다.

청년13(일+삶)통장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나의 가치관

특별상  
청년 김영동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희망** 이다

청년13(일+삶)통장 사업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대학가를 지나다 우연히 보게 된 홍보물이었다. 그때는 청년비상금통장이라는 사업으로 1기 모집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학을 졸업 후 기간제 계약직으로 이곳, 저곳 근무하면서 정규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어머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삼아 잠깐씩 일하면서 청년13(일+삶)통장에 지원하였지만 번번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추천제로 운영되다 보니 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러던 중 작년에 청년13(일+삶)통장 4기 모집 글이 문자로 와서 바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 선발되었다. 처음해보는 거다 보니 선정 후 광주광역시청에서 했던 오리엔테이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청년13(일+삶)통장은 10만원씩 10개월간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만기에 광주광역시 지원금 100만원과 소정의 이자까지 약 200만원의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은 취업은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적구입비, 온라인 강의로, 학원비, 면접용 의류구입비, 식비, 각종 시험 응시료, 교통비, 간식비 등 이 시대의 취업준비생, 청년에 한사람으로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각종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 원서라도 지원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돈을 벌고 또 일을 쉬는 기간에는 취업을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고 간혹 지원한 회사에서 서류라도 합격하는 상황이면 NCS와 면접을 대비하는 상황이 연속이었다. 그래서인지 저축은 나에게도 못할 일이었다. 청년13(일+삶)통장 사업에 선정되기도 매월 10만원이 나에게도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저축해야 한다는 걱정이 앞섰다. 얼마 안 되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버는 족족 쓰기 일쑤여서 모아놓은 돈은 거의 없었다. 흔히 취업준비생이 많이 응시한다는 토익 응시료도 4만원이 넘는 요즘이다.

청년13(일+삶)통장 4기에 참여하면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했다. 1주차 지출 영수증 모으기, 2주차 나의 소비지출 기록하기, 3주차 지출만족도 평가하기, 4주차 총동소비 진단하기다. 영수증을 모으는 것도 지출일자를 적고 매 주치의 지출액을 계산해보는 것도 처음 해보았다. 그래서인지 1주차에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많이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었다. 또 2주차에 지출일과 지출액을 매일 작성해보는 것도 내게는 생소했고 귀찮았다. 1주차가 지났을 때 영수증이 그래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모이자 내가 평소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2주차에 지출일과 지출액을 매일 작성해보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한주, 한주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수입도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지출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영수증을 모으면서 주로 지출은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먹는 다거나 식비에 많은 돈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간식을 사먹는 횟수를 줄이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소득을 조금씩 모으니 매월 10만원을 모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청약 저축도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고 있다. 나에게도 엄청난 변화였다. 매월 꾸준히 10만원씩 모아서 저축을 하다 보니 어느새 10개월이 지나 있었고 100만원이라는 큰돈을 모을 수 있었다. 청년13(일+삶)통장 사업 10개월 차 저축을 마무리할 무렵에는 저축사용계획서도 작성해보았다. 저축을 하면서 만기일 때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사용할지 미리 고민을 해본 탓에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100만원은 비상금으로 미래에 중고차를 사고 싶어서 따로 모아둘 생각이다. 남은 100만원은 첫 번째로 어머니 생신에 가족끼리 맛있는 저녁을 먹고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 두 번째는 자기계발 명목으로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취득에 사용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전산회계 1급을 취득하면 적성에 부합하는 직종에 지원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현재는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서적을 구입해놓은 게 있어서 정독 중에 있다. 청년13(일+삶)통장의 만기 지급금이 입금되면 미리 알아본 학원이나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치과 진료비로 사용 계획을 잡았다.

청년13(일+삶)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은 돈도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큰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또 돈은 수입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곳만 소비하는 적절한 지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돈을 모으면서 모아진 돈을 어디에 쓸지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그런 생각들을 통하여 조금씩 광주에서 일하면서 어느덧 나의 삶도 조금씩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주었다.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의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희망' 이었다.

청년 13(일+삶)통장의 전지적 작가 시점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STORY** 이다

특별상  
청년 JDM

2019년 8월 7일 오전 11시 34분 인터넷 기사 정보망을 통하여 “매월 10만원씩 10개월 저축하면 100만원을 더 주는 청년13(일+삶)통장 드디어 하반기 참여자 모집 시작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고”의 멘트와 함께 청년 금융복지지원센터와 인연이 시작되었다. 외부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나 행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 나로서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시하고 넘어갈 크게 외달지 않는 주제였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았더니 100만원 더하기 100만원이라 이자가 100%인 저축통장이 있다는 것에 정말 흥미롭고 놀라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내용들을 읽어 보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다.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거주지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인 자”, “근로 유형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자”, “소득기준 세전 61만원부터 174만원까지” 단번에 알았다. 이젠 나를 위한 통장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저 나에게 감사한 기회이고 나에게 좋은 사업인데 빨리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에 하던 일을 제쳐두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하고 근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도 준비하였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빠르게 신청하였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 선정인원이 320명이라는 생각보다는 적은 제한된 숫자였다. 궁금했다 광주 청년인구가 몇 명일까 과연 이 사업을 접하고 신청하는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 하는 마음에 기사를 검색해보던 중 그전의 사업 경쟁률은 약 9대1 수준을 보였고 이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그다지 높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선정에 대한 기대를 접어두고 일상으로 돌아와 업무에 집중하였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다. 특별한 것 없었던 똑같은 하루의 일과 속에서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며 똑같은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상 지루했고 무료함으로 가득 찬 매우 더웠던 19년 8월의 22일을 보내던 날 문자 한 통이 도착하였다. “2019청년13(일+삶)통장 4기에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나 내가 신청한 건 어떻게 알고 이런 보이스피싱도 하나보다 아닌가 이젠 텍스트 피싱인가 어느 유형의 사기인가 스팸인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잠시 3분 후 또 다른 문자가 도착하였다. “2019청년13(일+삶)통장 4기 선정되신 청년분들께 안내문자를 드립니다.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062-227-7079” 요즘은 이렇게 전화번호도 그냥 공개하면서 사기를 치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나의 마음이 미세하게 아니 티나게 뛰기 시작하였다.

의심을 가득 품고 기대를 더하여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였고 선정인원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였다. 그 순간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자면 그저 대박이라는 단어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만감이 교차하였지만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일과에 몰두하였고 어떤 공지가 있을지 기대를 하는 하루가 시작되며 무료함과 지루함이 기대심과 설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2019년 9월 4일 통장 배부식이 있다는 공지와 함께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하였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고 축하 공연, 연사분의 강연, 통장 배부, 약정 체결 등 일정들을 통해 정말 내가 이 사업에 선정되어 이 자리에서 통장을 배부 받아 나에게 200만원이 생길 것만 같다는 것에 실감이 가고 너무나도 떨리고 기대가 되었다.

돈이 생기면 뭘 먼저 해야 할까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내가 그동안 필요했던 게 뭐였나 뭘 먼저 먹어야 하나 많은 생각들도 잠시 저축 해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10개월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저축이란 그런가보다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때론 부담감으로 어쩌면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렇게 첫 번째 입금 날짜가 다가왔다. 내가 10만원을 저축했으니 난 20만원을 저축한 건가 너무나도 즐거웠다. 저축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이면 유용한 경제정보를 읽기 편하도록 모바일로 제공하여 주고 중간중간 미션을 통해 나의 경제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들이 제공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윈윈(win-win) 관계처럼 내가 하나를 주면 나도 하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의 통장 사업은 나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관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주관으로 도전! 청년 골든벨 행사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받게 되었다. 퀴즈를 통해 상품도 주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행사에 참석하였다. 매우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며 경제관념에 대하여도 배움을 받고 맛있는 샌드위치와 커피까지 제공받아 심적으로 많은 편안함까지 제공받아 즐거웠으나 똑같은 일상 속의 나는 반복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쩌면 만기지급을 위해 빨리 가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물이 흐르듯 시간은 흘러갔고 센터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했다. 선정자들의 자기개발과 생활역량강화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의 사업이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또한 나를 위한 사업임을 단번에 알아채고 신청하여 10만원을 지원받았다. 10만원은 나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누군가에게는 적고 외달지 않는 금액의 돈 일지 모르지만 나에게겐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따뜻함으로 다가왔다. 지원금 사용 후 간단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하였고 그렇게 시간은 지체없이 흘러갔다. 평소와 다를 게 없이 저축을 하려던 어느 날 문득 생각보다 저축금이 커다란 부담감을 나에게 안겨왔다. 어쩌면 많은 갈등의 순간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중의 나를 위해 다가올 미래를 위해 저축을 이어갔고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으며 저축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나의 일과로 돌아와 똑같은 일들과 일상의 연속이었다.

시간은 3개월, 5개월, 7개월 9개월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갔다.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나의 통장에 100만원이라는 저축금이 쌓일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고 전문 금융멘토와의 상담을 갖고 내가 10개월이란 시간 동안 100만원을 저축하였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해가 바뀌어 2020년 5월 만기지급과 관련한 안내 공지가 있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였고 모든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였다. 지속적인 경제 정보 뉴스를 받으며 그저 받기만 하는 감사의 시간들을 이어가던 날 청년13통장은 나에게 ( )이다 라는 주제와 함께 공모전이 개최되어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여러분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리고 부족한 그저 평범한 광주의 한 시민이고 청년일 뿐입니다. 어쩌면 운이 좋아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할 행운이 저에게 먼저 온 듯합니다.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통장 사업은 저에게 단순히 200만원이라는 금전적인 지원만 해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개월이란 시간을 선물 받아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고 나의 생활을 위해 지원해 주고 나는 주는 것이 없지만 나의 뒤에서 묵묵히 나를 위해 함께 걸어가 주는 센터와 센터의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을 선물 받았습시다. 통장 사업을 통해 나의 경제성과 저축성, 경제관념에 대한 다른 차원의 생각까지도 지원받았고 광주의 시민으로서 광주의 청년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10개월이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겁니다.

청년13통장을 통해 나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자 희망이다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한줄기의 빛이자 희망**이다

특별상  
청년 임상현

제가 이번 수기 공모전 제목을 버팀목이자 희망이라고 쓴 이유를 이야기 하자면, 저는 작년 까지 일용근로자로 버티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언제까지 일용직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용근로자로만 살아서 그런지 모아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비상금이라도 있었으면, 취업준비에 전념해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데 생계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돈을 모으는 법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모아둔 비상금조차도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어도 또 다시 생계에 위협을 받을까봐 다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을 다시 해야 하나? 하는 등등의 여러 생각에 잠길 때 즈음 우연히, 청년13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 글을 보고서 우선 비상금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발표 날 제발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그 결과, 제 추천번호가 최종참여자 명단에 기록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열심히 비상금을 모아서 하루 빨리 구직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13통장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단순히 100만원을 모아서 200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비와 휴가비 지원 등 여러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매주 마다 내려오는 금융상식 알기라는 프로그램하고 STEP 미션인데 먼저 STEP 미션을 통해 영수증을 모으고 내가 실제로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가계부 작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하고 절약할 수 있는 지출을 알 수 있어서 새어나가는 지출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마다 내려오는 금융상식을 통해 내가 몰랐던 금융상식을 알게 되었으며 매주 알려주는 금융상식을 통해 공부할 하게 되어 어떻게 하면 자산형성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으며, 자립심도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금융상식이나 자산형성 방법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르기 마련인데, 매주 주제별로 금융상식 알기를 통해 알려줘서 이해하기 쉬웠고,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 줘서 자택에 배송까지 해줘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은행금융상품을 볼 때 책자와 함께 보면서 금융상품을 찾고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13통장 만기일에 비상금을 받았고, 그 비상금으로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한 지 8개월 만에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자산형성을 위해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있으며 저의 삶의 질 또한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13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몰랐더라면, 저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13통장이 단순히 비상금만 모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산형성 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을 통해 저에게는 청년 13통장이 버팀목이자 큰 희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13통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청년금융복지센터, 광주광역시청 등 여러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특별상**  
청년 서용찬

다음 기수 참여자분들께 보내는 편지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연금 복권** 이다

다음 기수 참여자님들께... 안녕하세요? 청년13통장 4기 수료자 서용찬입니다.  
먼저 이 멋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특별한 미션을 경험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다는 먼저 경험한 제가 프로그램을 겪어보면서 좋았던 점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통장 2개와 안내책자를 받고 프로그램 취지와 구체적 계획 및 설명을 통해 시작된 청년13(일+삶)통장은 저에게 오랜 기간 따뜻하게 도움을 주는 연금복권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엔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고 광주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긍정적으로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잘 관리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처음 미션을 받고 수행할 때는 가볍게 성공했지만 점차적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하나씩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수입이 들어오면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소비한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영수증 받게 조금씩 자연스러워 지고 이것을 토대로 지출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계획된 지출을 위한 대비와 나의 소비생활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며 개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미션을 통해 단계적으로 바뀌어가는 지출에 대한 접근방식과 태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미션에서는 소비지출에 관한 1년 계획까지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제 교육은 거시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원하는 대학입학만을 위해 노력해왔고 대학생이 되면 반복되는 시험과 과제, 학점, 대외활동은 크게 관심을 갖지만 막상 개인의 소비생활이나 경제에 관련된 지식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스스로 공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현실에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러한 교육을 청년13통장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카드뉴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저축이나 적금 등을 제외하면 우리가 은행을 활용하는 일이 크게 없는데 짧지만 영영이 가득한 카드뉴스를 보면서 저축, 적금, 신용, 대출 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만 잘 몰랐던 지식들과 주거와 관련된 서류나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ETF, CMA 같은 고급지식들도 친절하고 쉽게 알려주어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의 기본을 배우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다음 달의 월급을 기다리면서 일에만 몰두하는 나에게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미래를 계획하게 만들어준 프로그램과 미션에 관한 궁금증이나 관련된 지식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오랜 기간 끝까지 함께 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신 친절한 멘토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경에 경제시장도 위축되고 청년들은 당장 앞길은 막막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은 언젠가 꼭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꾸준히 끝까지 완주하셔서 저와 같은 기본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행복**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작은 행복** 이다

**특별상**  
청년 임도희

**청** 청년13(일+삶) 통장은 나에게 "작은 행복" 이다

**년** 연말에 찾아온, 작은 선물을 "청년 일+삶통장" 은

**일** 일만 해오던 지친 삶에 재미난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 주었고,

**삶**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작은 습관이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어 주었다.

**통** 통장에 쌓여가는 작은 돈 하나하나가 이렇게 즐거운 것이었던가!

**장** 장난감 사러가는 아이처럼 나는 마지막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었던때가 생각난다.

**참가상**

청년 박00

**나에게 빛을 빛으로 만든 존재**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빛을 빛으로 만든 존재** 이다

처음 청년 13통장을 접했을 때는 내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할 시기였다. 학원비가 200만원 정도 하여 카드 할부로 결제 해놓은 상황이고, 알바를 병행하고 있었다. 상황상 10만원도 컸던 때 였고 신청해도 안될까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지인분이 자기였음 신청이라고 해봤겠다는 말에 "그래 신청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어 수수료까지 하게 된 지금이다.

신청할 때만 해도 나는 돈에 대한 관념, 소위 말하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알바를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중, 매월 월세, 카드값, 적금까지 하러니 버거워 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 열정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마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잘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생활고에 시달렸고 도전에 성공하면 금방 값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액 대출까지 했었고 그 금액을 계획있게 쓰지도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다. 돈에 대한 관념과 계획이 되지 않은 상황에 냉정하게 보면, 말만 좋은 새로운 도전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 제일 값진 경험을 했다. 처음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자책도 했었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청년13통장에서 하는 금융멘토링을 통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해보고 실패하고 다시하고 실패함으로써 항상 어디선가 듣는 말로 실패가 배움을 준다는 말을 실제로 공감을 하게 되었다.

돈의 관념이라는게 작은 금액을 월별로 실감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커피값을 하루에 3,000원이라면 월로는 90,000원 이다. 한번도 생각하지 못한 금액이었다. 물론 아예 안 먹고 아끼자는 건 아니고 돈의 관념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10개월이 끝나기 전, 소액대출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일상은 많이 변해있었다. 내 일에 대한 소중함도 생기고 월마다 계획이 있고, 이번 년도 내년까지의 적금 계획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나의 일상, 일삶**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일상** 이다

**참가상**

청년 조00

**나의 일상, 일삶**

매일 반복되는 일상  
월화수목금금금

주말 없는 나의 일상  
오늘도 나는

책임감이라는게 버거웠던 일상  
나 하나도 벅차

베풀고 싶어도 한숨쉬는 일상  
그게 나의 한계

힘이되어준 일삶  
내 일상에 일과 삶

일일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된  
일삶과 일삶이 좋은 나

**참가상**  
청년 전○○

**삶과 삶을 이어주는 청년13(일+삶)통장**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추억이 깃든 목돈이자 경제 입문로 이다

2019년 4월 4일 저녁에 추첨 생방송을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었다. 기억에 6대 몇, 7대 몇 이 정도 경쟁률이었던 것 같다. 생방송 보기 전에는 그 정도 경쟁률이면 당첨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생방송을 보며 추첨을 시작하는 과정을 보니 근사치의 번호들만 호명되고 내 번호는 비껴만 갔다. 생각해보니 일곱 집이 있는데 한 곳의 번호를 눌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었다. 2:1이어도 어려운 일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구나 싶었다. 어렵겠다 싶어 기대했던 마음을 내려놓자마자 갑자기 내 번호가 불러졌다. 아니, 세상에! 언니와 앙림동 산책길에 있는 카페에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던 때가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 흘렀다.

청년13통장을 하고 있던 시절에 나는 cgv 영화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에서부터 졸업한 후 6개월 정도, 총 4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다. 주로 오전 근무를 했는데, 아침 일찍 6시 혹은 그 이전에 눈을 떠서 후다닥 준비를 하고 버스로 잘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택시를 타고 영화관에 서둘러 도착해 일을 했었다. 가장 좋아하던 곳이 영화관이라 시작하게 된 아르바이트는 대학 시절에 나에게겐 학교를 다니며 필요한 돈을 마련하게 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건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나름 내 스스로 돈을 벌어 필요한 곳에 충당하고, 그 곳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세상을 알아갔다.

점차 4학년 졸업반이 되면서 앞으로의 진로가 고민되었다. 나는 임용을 봐서 교직에 가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런데 임용은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에는 버거울 것 같았다. 나름 오래 일을 해서 퇴직금은 약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임용 공부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중에 청년 13 통장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다.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전에 13통장에 지원해서 당첨됐다고 좋아하던 모습을 보았기에, 나도 자격이 될 수 있겠다. 지원해보야겠다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었다. 이자 100퍼센트, 내가 100만원을 넣으면 100만원이 이자로 더 들어오는, 그런 대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나는 일명 '쇼미더머니' 라는 몇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돈의 흐름을 알아가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만족하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멘토와 함께 주차 별로 자신의 지출 패턴을 성찰해보고, 월 예산과 1년 예산을 계획하는 등의 활동이 그것이었다.

매번 달마다 같은 날짜에 돈을 넣고 미션을 수행하는 일이 생각보다는 조금 귀찮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이자를 주는 통장은 청년13통장 말고는 없기에 그런 귀찮음은 쉽게 삼켜졌다. 그와 동시에 미션을 수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잠깐씩이나마 갖게 되었다. 마지막에 금융 관련 퀴즈를 푸는 게 있었는데, 여러 금융 관련 용어들을 알게 되고 정책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적금을 넣다보니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적금이나 예금 용어가 나올 때,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청년과 관련된 금융 지원책들은 또 없을까? 궁금하고 알아보게 되었다. 이런 점이 청년13통장이 나에게 이자 이외에도 변화를 가져온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나에게 청년13통장을 통해 넣어둔 새 희망 목돈이 남아있다. 알바를 그만 두고 공부에 전념하는 지금, 그 목돈을 생각하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청년 13통장이 나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아르바이트의 추억들이 그 목돈에 함께 깃들여있다. 10만원이 쓴다면 금방 써버리게 되는 소소한 돈이지만, 100만원, 200만원 이런 목돈으로 묶이게 되면서 사라져 버리지 않고 다시 또 다른 나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투자금으로 변환되어 남아있다. 청년13통장은 아르바이트의 추억이 깃든 과거의 삶을 앞으로 교직에서 살아갈 나의 삶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펼쳐질 다른 나의 삶들로 이어지게 해주었다.

**포기하는 청춘에게**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 이다

**참가상**  
청년 김○○

"시작은 미약 하였지만 그 끝은 창대 하리라" 이 말처럼 내 청춘 역시 그럴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미약함으로 시작해 나의 나약함으로 끝나버리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나는 내 청춘을 허비하고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내 나름 노력을 했지만 고배를 마시는 것의 연속이었다. 시작을 했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 반복되면서 난 의욕을 잃어갔다. 이 십대 후반의 나이에 아무 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순 없어 전공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을 종종 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일이었다. 그러다 광주에서 하는 청년 사업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신청도 전에 현실이 내 발목을 잡았다. 10개 월간 10만원이라니, 근근이 벌여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나에게 퍽 부담되는 액수였다. 하지만 좀 아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고 운 좋게 청년 일 살 통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만기일이 가까워 지자 나는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설렘을 멈출 수가 없었다. 금전적 이유 보다는 무언가를 꾸준히 해냈다는 사실이 나를 참 벅차게 했다. 나에게겐 작은 목표라도 성취하는 것이 필요했나 보다.

그런 나에게 있어 청년(13(일+삶) 통장은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만 하고 매번 결실을 맺지 못했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에 지친 나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나는 바란다. 나 역시 얼른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 나와 같은 청년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어른이 되기를, 포기과 실패가 익숙해진 청년들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줄 수 있기를...

**참가상**  
청년 **곽○○**

**나에게 행복이다**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행복**이다



**10개월의 변화**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계획**이다

**참가상**  
청년 **김○○**

처음 내가 이 사업에 알게 된 것은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분이 알려주셔서 같이 해보자고 해서 사업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떨어져서 속상함도 잠시 몇 개월 후 다시 모집 글을 보고 공정한 공개추첨을 통하여 뽑히게 되었다.

자유적금은 들고 있었지만 정기적금 형태는 오랜만이라 설레기도 했고 금액대로 적당하여 10만원씩 제 날짜에 넣는 것도 문제가 없었고 월급이 들어오는 날과 적금 날이 달랐지만 10만원이 20만원으로 저금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좋고 셀레어서 미리 넣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션들을 하면서 영수증을 모아도 보고 지출 갈래 미션도 해보니 내가 어느 곳에 돈을 많이 쓰고 경조사 비용도 많이 빠지는 달도 보여 불필요한 지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경조사 비용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남으면 자유적금으로 넣는 방식으로 지출을 바꾸었다.

미션을 받을 때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였지만 그 의무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껴 저금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 미션 회차가 늘어나면서 내 자유적금 금액도 늘어나가 미션이 귀찮지도 않고 보람찼다.

중간 즈음 가니 처음 통장 만들 때 설명 받았던 여가생활 또는 교육비 지원 이벤트를 열어서 미션도 제출기한까지 잘 지켜내고 완료하여 여가 생활비로 10만원을 지원 받아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였지만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바다도 보고 와서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보고서 제출할 때 다시 그때를 생각하며 행복 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보내주시는 머니클리닉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어서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 청년이 대형 청약통장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사업이라 개설되자마자 은행 방문을 해서 문의 하였는데 은행원에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어 포기하였는데 사업의 목적과 주택 소유 유무 이부분이 제일 헷갈렸는데 정리가 잘되어 있고 프리랜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직업도 가능하다 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 하여 은행을 방문하려고 준비 중이다.

또 이사할 때가 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집구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초보자도 집 구할 때 피해보지 않게 정리가 되어있어서 체크리스트를 들어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10개월 동안 저축, 미션 그리고 머니클리닉을 받으면서 내 경제관념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적금이 끝나도 정기적금으로 10만원 정도는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껴서 정기적금을 개설하여 10만원씩 넣는 것을 이어 갈 것이고 지금 당장 소비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지출을 할 것이고 주택 청약을 청년 우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래서 청년 13(일+삶)통장은 나에게 계획이다.

참가상

청년 최00

진짜 나를 찾아가도록 한 발짝 내어준, 디딤들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디딤들 이다

저는 헤르만헤세의 작품 '데미안'에 나오는 싱클레어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미안 작품속에서 싱클레어는 학교 재학시절에 불량소년 프란츠 크로머의 유혹에 빠져 정신적인 곤경에 처했으나, 친구 데미안(결국 자신이 만든 허구적 인물, 자기자신의 도움으로 그것을 벗어나며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로지 내면의 길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느덧 취업이라는 우리사회의 큰 관문 앞에서 서서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할까?', '나는 뭐하고 살아야하지?' 라는 스스로의 질문과 함께 나의 모습, 싱클레어처럼 '나' 를 찾는 것을 목표로 내면의 길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다양한 알바 경험도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행복하다는 감정은 느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캄보디아로 간 선교활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되는 존재임을 느낄때, 누군가가 나로인해 도움을 받을때, 누군가에게 가르침이나 조언을 줄때, 시나 일기와 같은 글을 쓸때 아무런 조건없이 행해도 너무 기쁘고 보람되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이 될것인가, 취업해서 돈을 모아서 학원을 차려 학원 원장님이 될것인가를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난후, 청년13통장의 기회가 찾아왔고, 인생이라는 길목에서 두 갈래를 고민했던 저에게 나침반처럼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먼저, 청년13통장 기간 동안에, 돈에 대한 정확한 이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험, 금융, 집구하기, 신용카드 등과 같은 궁금했던 부분들에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계발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고싶었던 공부를 부담 없이 하게됨으로써 저는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해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목표에 확신을 가질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만원씩 저축을 하면서 이유가 있는 든든함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통장이 만료가 된 후에도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도와주어서 더욱 후회없이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선교비로 저축액의 일부를 보냈을 때, 저는 다시한번 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확실하게 찾은 선생님이라는 나의 꿈으로 더욱 나아가기위한 귀한 디딤들과 같은 10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디딤들

참가상

청년 박00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페이스 메이커 이다

디딤들

내 나이 30

주변 소음이 잘 들리는 때  
걱정, 참견의 소음이 들린다

하고싶은것 잘하는것 나의 꿈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때

다른 미래를 꿈꾸어 본다  
청년13과 함께 꿈 꾸어본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꿈을 두드리며

**참가상**  
청년 이○○

**생각지도 않았던 청년 통장 당첨과 그로 인한 따뜻함**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한 줄기 따뜻한 햇살** 이다

2018년 청년통장 모집공고를 보고 청년통장 지원을 하게 되었다. 무려 20대 1일이 넘어가는 경쟁률이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결과를 보게 되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터넷 접속이 잘 되지 않아 당첨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당첨일 당일에 문자가 없어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확인하니 되어서 너무 기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이가 다음해에는 안 되어서 조마조마 했는데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러 난 빵과 간식, 여행용 물품, 예코백 같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고,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광주광역시와 청년통장 직원들에게 고마웠다.

한 달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면서도 아주 크지는 않은 액수를 매달 넣으면서 약 1년(10개월)이 되기를 꼬박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 각종 정보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하여 들어왔다. 또한 미션에 참여해서 기프트콘도 받고 나의 경제관념과 예산을 어떻게 짜야하는지 알게 되었고, 보험이나 청약저축 등 필요한 경제 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 미션에 참여해서 예산도 짜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산을 짜야할 지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필요한 점과 예산 및 소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알 수 있었다. 저축은 많이 하지만 쇼핑도 할 때가 많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참여 후에는 덤으로 선물도 받으니 너무 좋았다. 게다가 1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이벤트도 있어서 이 돈으로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살 수 있어 좋았다. 그 돈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 결과 작년에 시험과 면접을 통하여 올 해 한국어교육 3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각종 취업과 관련된 도서도 무료로 받았는데 한국사자격증 1급을 올 해 따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관광통역안내사나 직업상담사 책도 와서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생각중이다. 만기 한 달 전 모아서 선물도 주고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가지 못했던 적이 있어서 너무 아쉬웠다. 드디어 날짜가 되어 청년통장 100만원을 받은 후 너무 기뻐던 기억이 난다. 적금 100만원과 받은 100만원으로 예금도 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조그마한 선물도 주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작은 선물을 하였다. 코로나만 아니면 여행도 갔을텐데 너무 아쉽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광주광역시와 청년통장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이 외에도 경제에 관한 지식들을 모은 책지도 오고, 2020년 다이어리도 와서 너무 좋았다. 문자나 카톡을 꼭 확인하고 무조건 선착순으로 참여하면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적금 이벤트를 또 하나 더 했는데 올해 5월에 만기가 된 6개월간 적금을 통해 17프로에 엄청난 이자를 주는 광주은행 적금을 통해 또 한 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교통복지카드 이벤트에 해 볼 텐데.....너무 아쉬웠다.ㅠㅠ 만 39세 이하는 안되나요? 아직 젊은데요 ^^ 청년구직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도 카톡이나 문자로 와서 매번 보는데 나이가 안되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여 매우 아쉬웠다. 전에 보험에 관한 설문도 보았는데 실행이 돼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청년13 통장은 일과 삶 뿐만 아니라 여가를 더한 나에게 한 줄기 따뜻한 햇살이 되었다. 앞으로도 참여할 모든 분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듬뿍 받고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감소가 심했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청년과 그 외에도 모든 사람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10번의 약속이 주는 커다란 기쁨**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열려라 참깨!** 이다

**참가상**  
청년 정○○

함께 일하던 동료분이 어느날 공고문을 보여주었다. 적은 급여로 알뜰살뜰 지내온 나에게 금같은 기회였다. 내가 10번을 넣으면 나에게 10번만큼의 선물을 준다니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금같은 기회는 여러번 시도해도 오지 않았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안되어서 '아쉽다' 로 끝났지만 나이가 있는만큼 두 번째 떨어지니 조금은 마음이 조금해졌다. 언제나 내 차례가 올까. 그 차례가 정말 올까? 그러다 세 번째 공고가 났을 때 앞서 두 번의 탈락으로 신청을 주저하다 '그래,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지!'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신청을 했는데 3번만에 그 금같은 기회가 온거대! 나도 드디어 청년13통장에 참여할 수 있다니 정말 신났다.

처음엔 막연히 적금처럼 넣으면 되겠지 했는데 여러 가지 미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구나' 싶었다. 여러단계의 미션을 해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무대책, 무근본 지출을 하고 있었나 나의 소비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월, 연지출도 미리 계획해보는 미션이 있었는데 돈을 관리한다는게 어떤느낌인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그 전엔 아껴쓰고 저축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미션을 통해 나의 돈관리 습관을 제대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청년13통장 참여자들에게 참여기간 여러 프로그램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도 매우 만족하였다. 수기를 쓰는 이번 달은 10번의 약속 끝에 커다란 기쁨을 받는 달이다! 처음보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미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나아지는 나의 생활들을 보며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혜택을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길! 한번은 꼭 참여해보길 추천합니다!!

참가상  
청년 손○○

뎡자리 없는 캠프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뎡자리 없는 캠프 이다

### 뎡자리 없는 캠프

사실 이상할게 없어 보인다  
캠프에서 뎡자리가 필수 아니기 때문  
하지만 뎡자리가 있으면 편리함, 편리함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다.

청년13통장은 내게 그런 존재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저축 할 수 있게 습관을 만들어,  
저축의 편안함을 주었고

만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알맞은 곳에 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주었고

조금은 지쳐갈 때 만기통장을 받으면서 기분을 업 시킬수 이었다.  
내게 13통장은 뎡자리 없는 캠프

나를 찾아서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밑거름 이다

참가상  
청년 나○○

어른이 되기에 조금 이른 나이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나는 치열하다는 취업 전선에 먼저 뛰어들었다. 꿈 많고 하고 싶은 것이 한참 많은 나  
에 시작한 직장생활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배워야할 것도 많고 서투른 것 투성이었지만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  
다는 것에 그저 뿌듯했던 나는 청춘이었다. 그때 책 한권에 감명 받아 이루고픈 것, 하고픈 것, 갖고픈 것을 잔뜩 적은  
버킷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다. 남들이 보기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리스트일지라도 나에게겐 소중한, 이걸 모두 이루  
면 난 부자가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금세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다. 뭐라도 되어있을 줄 알았던 나는 제자리였고, 일상에, 직장 생활에, 돈에 치여 나의 소중  
한 버킷리스트는 열정 많은 20살의 나와 함께 그 자리에 멈춰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일살통장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안될 줄 알았던 것이 선정이 되었고, 차곡차곡 나만의 자금이 마련 되어  
갔다. 만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할지 적는 란에 뭐라고 적을지 한참을 고민했던 것 같다. 사용해야 할 곳은 많은데  
막상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몰라 한참을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일살통장이 만기가 되던 날, 나는 생각만 해왔던 기타 한 대를 구입했다.  
거창하게 주변에 밥도 사고할까? 생각해 해봤고, 모아뒀다가 이사 비용으로 사용할까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버  
킷리스트를 위해, 나만의 삶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던 기타를 만지면서 다시한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19살의 열정과 패기가 새록새  
록 쏟아났다.

일살통장은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 자금을 씨앗 삼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천천히 해가면서 나의 삶을 찾아가는 중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에 너무 치여 살아도 삶의 의미와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그저 즐겨버리면 미래가 불투명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살통장은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에  
게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을 주고, 새로이 시작하는 청년에  
게는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종국에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청년들의 밑거름이 아닐까 싶다.

참가상  
청년 선○○

청년13 통장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희망** 이다

**청년13 통장**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복지지원은  
청년13 통장이 있는 좋은 세상이다.  
청년13 통장 속에 들어있다  
청년13 통장에서 시작된다  
다시 청년13 통장만이 희망이다.

305

참가상  
청년 손○○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인내심 업그레이드 극약 처방제** 이다

**305**

귀찮음  
널 위해 해야하는게 많아

감흥 없음  
하다 보니 익숙하고  
언제가 끝나겠지

안 괜찮음  
점점시간은 걸이 늦고  
지갑에선 돈이 도망쳐

기다리고 있어  
처음에 널 하찮게 생각했던  
날 용서해줄래?

드디어!  
며칠 안남았어

곧  
305일 널 기다린 시간

**참가상**  
청년 정○○

**티끌 모아 태산**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첫 만기통장**이다

**티끌 모아 태산**

적금으로는 적다고 생각한 10만원  
부담 없이 한달, 두달 날다보니  
어느덧 10개월 후 만기일  
나의 첫 만기통장이 되었다

200만원은 적다면 적은 돈  
많다면 많은 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나에겐 큰 희망이 되어주었고  
적금은 많이 들어야 된다는 나의 생각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적금 만기 후  
통장만 봐도 행복한 내 마음  
이 마음 간직하고 또 다른 시작  
작지만 큰 변화는 나의 마음가짐이었다.

**청년13(일+삶)통장이라는 계단을 통해 행복에 도착했습니다**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행복으로 가는 계단**이다

**참가상**  
청년 오○○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행복으로 가는 계단이다.**

•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관중에서 거주하여 일하는 자임금 근로 청년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 금융 역량 강화, 금융생활 역량 강화에 1억 5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개월 적금했더니 100만원을 더 주는 통장!

금전적인 여유  
지속에 대한 자신감  
행복, 즐거움

금전적인 어려움  
지속에 대한 두려움  
금심걱정

청년13(일+삶)통장

청년13(일+삶)통장에 졸업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설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제 일상도 변화되었습니다. 금여가 적다고 생각했지만 이 통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에 드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어 퇴사나 이직 걱정을 줄여주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들과 취미들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니 시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원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도서를 구매하여 공부하는 중이고 그토록 하고 싶던 필라테스, 요가도 하며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자금만이 아니라 금융멘토링, 머니클리닉,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어서 즐겁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축을 꾸준히 하고 재미를 느끼며 행복한 삶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상**

청년 김00

**고맙습니다! 청년13(일+삶)통장**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비타민** 이다

청년13통장에 응모할 당시엔 내가 설마 뽀찹까 했는데, 막상 뽀치고 나니 10개월간 매달 10만원이란 돈을 저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많지 않은 월급에 대학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 빚과 각종 공과금, 보험료에 순수 생활비도 매우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저축을 하면 100만원 이자를 준다는 파격적인 (?) 저축 상품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에 매우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청년13통장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제 예상과는 달리 너무 빠듯하거나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13통장을 하며 영수증 모으기, 지출내역 분류하기, 분류한 지출내역 중요도 평가하기 등과 같은 미션들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들이 알게 모르게 저의 소비습관을 많이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낄 수 있게 되다보니 한달에 10만원 저축이 크게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 200만원이란 목돈이 생겼을 때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을 매우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제 여동생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언니로서 무언가 선물해줄 수 있다는 행복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13통장은 그동안 무료했던 제 직장생활을 포함한 모든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비타민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계속되는 취업실패로 인한 우울감,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 전공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며 느꼈던 무능력함, 적은 월급으로 어떻게든 버티고자 노력했던 저의 시간들에 보상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와 같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청년들에게 힘을 준 광주시와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에 고마움을 느끼며 이 수기를 적습니다.

**13은 기회다**

**참가상**

청년 문00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기회** 이다

**나에게  
청년 13통장은  
#기회다**

**저축의 습관이  
어려웠던 나에게  
저축할 수 있는  
#기회**

**저축만기를 통해  
하고싶었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참가상

청년 김00

인생의 전환점이 된 청년13통장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전환점** 이다

평소 적금을 습관처럼 넣던 저는 좋은 기회를 얻어 청년 13통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지 않은 짧은 기간과 지원금 100만원에만 집중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뜻밖에 얻게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영수증 모으는 것부터가 어찌나 어렵던지...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면서 지출을 파악하다 보니 제 소비 패턴도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지출을 파악하고 만족도를 평가하면서 후회되었던 부분들이 많을 정도로 낭비되는 소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수증 모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매달 지출되는 부분을 계획하고 계산하다 보니 조금은 총동 지출을 줄이게 된 것 같습니다.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레 하던 일을 그만 두게 되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매달 저축하고 있는 이 청년 13통장도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미션 수행 하면서 생긴 계획하여 지출하는 습관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 생활 역량 강화 지원으로 계획만 하고 있던 컴활, 토익 등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빠짐없이 저축하고 추가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앞으로 저는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10개월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저에게 지출 습관 뿐 아니라 매주 보내주시는 경제관련 정보들로 인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청년 13통장에 참여하고 수행 하면서 잘못된 소비습관과 갑작스런 실업 등으로 한없이 가볍기만 하던 저의 통장 잔액으로 인해 차마 시도하지 못했던 여러 분야에 도전 할 수 있게 되어 저에게 청년 13통장이란 인생에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저축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기회** 이다

참가상

청년 선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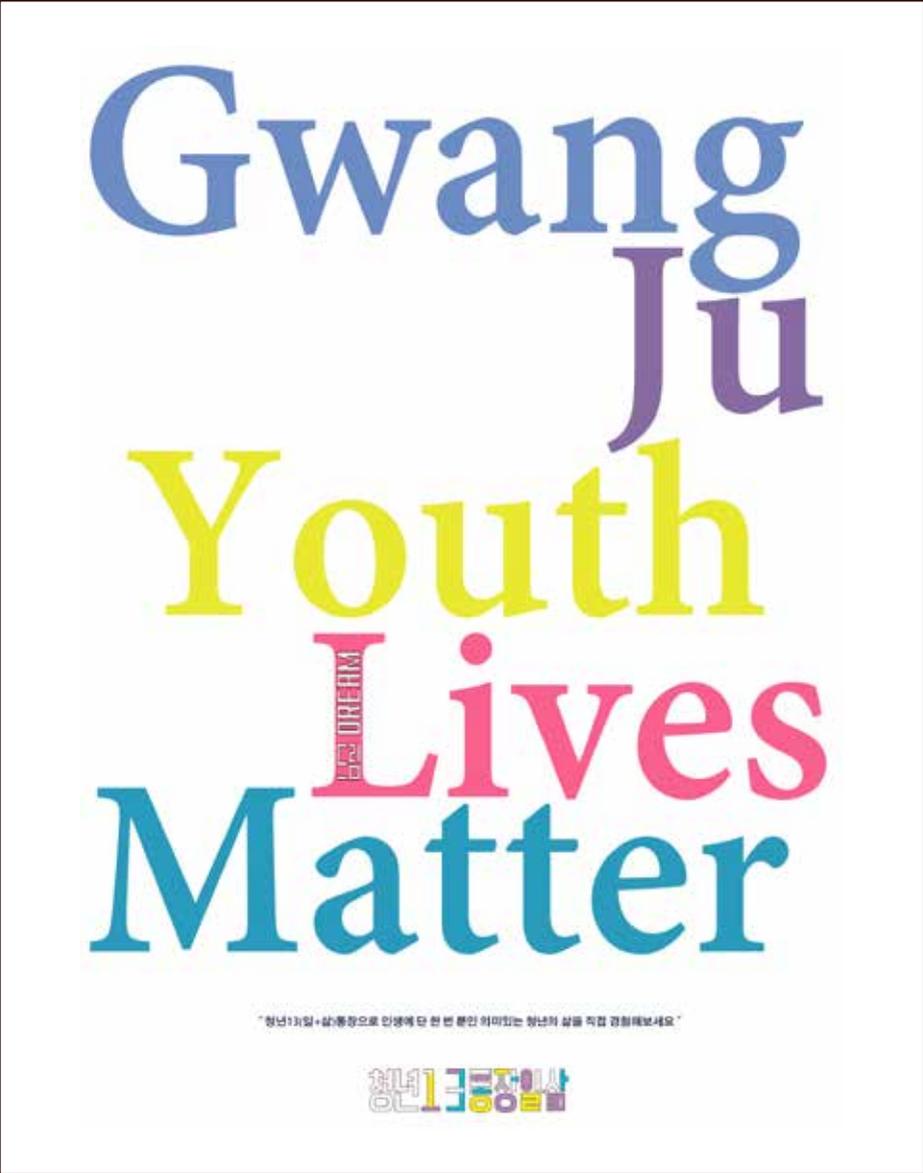
사실 주택청약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청년 13통장은 총 100만원을 저축하면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시작했다. 이미 월급의 65%는 은행에, 10%는 보험에, 총 75%를 저축하고 있어서 부담이 됐지만 단순히 돈을 더 준다고 그냥 신청했다.

교통비만 10만원이라 생활비가 줄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 적은 생활비에서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나도 모르게 한층 더 성장하고 있었다. 청년 13통장이 끝나고 지금은 생활비에도 적응이 됐고 한 달에 10만원 여윌돈이 생겨 주택청약 신청을 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여기서 더 저축이 가능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어떻게든 소비를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걸 깨닫게 되었고, 곧 받게 되는 200만원 중 100만원은 비상금으로 두고, 나머지 100만원은 저축할 예정이다.

**참가상**  
청년 김○○

**광주 청년의 삶은 중요하다**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20대의 새로운 목표를 부여해준 계기 이다



**앞으로 성장할 나의 첫걸음을 위한 발판**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첫 걸음 이다

**참가상**  
청년 양○○

**자산관리의 첫 발걸음, 청년13(일+삶) 통장**  
대학 졸업 후 인턴생활을 시작하며 저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을 찾아 보던 중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청년13통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일과 삶을 지원하는 통장이라는 설명을 보며 '내가 찾던 게 이거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제로 운영 되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레던 시작, 꾸준한 성장의 디딤돌**  
지원서를 제출하고 추천 당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라이브방송을 지켜보았고 초반에 호명되는 제 추천 번호를 보며 너무 기뻐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선정 축하 문자와 함께 1회차 금액을 납입하였고 일주일 후 약정식을 참여하였습니다. 퇴근 후 저녁시간에 참석한 청년들을 위해 준비해주신 간단한 간식에 세심함을 느꼈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센터 문의 방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참여자가 납입할 통장과 만기 시 수령할 지원금 통장을 함께 배부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참여해 만기 달성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참여 기간 동안 단순히 참가만 하는 것이 아닌 매주 목요일에 오는 카드뉴스를 통해 청년에게 유익한 머니클리닉을 제공해 주셔서 매주 하나씩 금융상식을 배우는 재미가 있었고, 근로생활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관련 도서구입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소미더 머니 미션을 통해 처음에는 영수증을 모으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기도 하였고 종종 잊어버리기도 하였지만 단계별로 나의 소비와 만족도를 점검하며, 더 나아가 앞으로의 지출까지 고려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지금까지도 애용하는 지출 관리 방법입니다.

**성장의 발판, 소소해도 목표와 끈기를 가지는 것!**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적금해봤자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거나 '1년 동안 저금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지레 겁먹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하고 어쩌면 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와 '시작'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기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여 어느새 13통장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쌓여가는 적금에 재미를 붙여 현재는 3개의 적금을 더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적금을 넣고 있는 저의 목표는 큰 금액을 모으는 것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금액에 의의를 두기보단 않고 만기를 목표로 꾸준히 시작해 늘려 가는건 어떨까요?

**참가상**

청년 **김00**

음악을 하는 저에게 정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 이다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음악을 배우는데, 음악으로 먹고산다는 자체가 고정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항상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지내다가 알게 된 청년13통장은 정말 저에게 가뭄에 단비 같았습니다. 부족했던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MR 저작권으로 함께 공유하지 되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참가상의 '심'을 통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청년13통장**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그들** 이다

**참가상**

청년 **윤00**

이른 더위가 찾아오며 뜨거운 햇빛이 아스팔트를 달궀어 아지랑이가 아른거린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위를 피하려 연신 부채질을 하고 또 핸드형 선풍기를 틀기도 하며 햇빛을 피해보려 높은 건물 옆 그늘을 찾아 걷는다. 주요 횡단보도에는 그늘막쉼터가 날개를 펼쳐며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기다린다. 햇볕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내리쬐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철 햇볕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또 멈추게 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에도 또 견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잠시나마 햇볕을 피해 '심'을 제공해주는 '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나에게도 뜨거운 햇볕이 계속해서 따라왔다. 대학졸업 후 전공을 살려 일을 해보기도 했고, 또 우연히 기회가 닿아 조교생활도 했다. 자연스럽게 대학원까지 다니며 연구원 생활도 했다. 내 청춘은 그렇게 심 없이 햇볕을 그대로 맞으며 달려왔다. 그리고는 이제 더는 나아갈 힘이 떨어져 정말로 '심'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광주청년 13통장을 만나게 되었다. 심이 필요했던 나에게 13통장은 그늘이 되어주었다.

10개월 동안 나는 13통장과 한 약속을 한번도 어기지 않고 지켰고 10개월 후 그 약속의 성과물을 받았을 때 깊은 보람을 느꼈다. 대학졸업 후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이렇게 나의 작은 노력과 13통장의 선물을 더해 받은 그 느낌은 새로웠다. 그렇게 10개월 간 13통장이 나에게 선사했던 그늘을 통해 나는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기로 했다.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13통장과 10개월간 약속을 꾸준히 지켜냈던 내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나에게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선물해준 청년13통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도 더 많은 청년들이 13통장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나보길 기대한다.

chapter 2

## 덧붙이는 이야기

- 마음으로 보낸 편지
- 사업 운영현황
- 청년13(일+삶)통장\_추가 지원사업 '더(THE)드림 통장'

## 마음으로 보낸 편지

청년13(일+삶)통장 참여 청년분들께  
10개월의 여정을 무사히 완주해 내신 우리 청년들의 청년13(일+삶)통장 만기 졸업을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고 하죠. 누가 1등으로 들어오느냐로 성공을 따지는 경기가 아니니까요.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를 인생의 성공 열쇠로 본다면, 청년13(일+삶)통장 참여를 통해 나의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었길 희망합니다.

보내드리는 책자 중,

『우리들의 1(일)+3(삶)톡톡(talktalk)』은 ‘2020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제2회 청년13(일+삶)통장 수기공모전’에 참여한 청년들의 수기모음집입니다. 청년13(일+삶)통장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해 보아요. (유튜브 ‘광주청년13TV’ 를 통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13(일+삶)통장 머니클리닉』은 ‘슬기로운 청년생활’을 위해 장인의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활용서로, 우리 청년들께 10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에 한 편 씩 꾸준히 카드뉴스로 보내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곁에 두시고 필요하신 상황이 생기실 때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합니다.

## 졸업을 마친 청년들에게

청년13(일+삶)통장과 함께 찾아온 행운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길 바라는 만큼, 앞으로도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광주청년이 광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7월경에는 청년13(일+삶)통장사업 만기졸업자의 졸업 이후에도 저축습관 유지를 돕기 위한 ‘THE(더)드림통장’ (적금이율 17% 상당 이자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시행과 더불어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드릴게요.

2020년 6월 30일  
늘 여러분을 생각하는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드림

ps.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의 활동은 주욱~~ 계속 됩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062.227.7079 청년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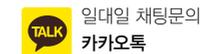
광주청년13TV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dream131004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광주광역시 2018년 7월 광주형 청년자산형성사업인

청년비상금통장 → 청년13(일+삶)통장

◆ 사업명 변경 ◆

1,620명에 청년들에게 소액자산형성과 자기개발/생활(문화)지원, 더(THE)드림 추가지원 등으로 광주광역시 청년들의 1(일)과 3(삶)을 응원합니다.

## 더(THE)드림 통장



광주광역시와 지역기업이 일하는 청년의 저축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기 저축 추가이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보해양조(주), (주)광주은행,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와 '더(THE)드림 통장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더드림 통장은 광주시가 시행 중인 청년13(일+삶)통장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청년13통장 참여 청년들이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축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 지역기업인 보해양조(주)와 (주)광주은행에서 뜻을 함께 해 이뤄졌다. 더드림 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6개월간 만기 저축하면 시중 은행이자 1%대보다 큰 적금이율 약 17%에 준한 추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청년13(일+삶)통장 졸업자들로 매년 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1000명에게 지원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보해양조(주)는 매년 후원금 300만원씩 향후 5년 동안 1500만원을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에 사업비로 기탁하고, (주)광주은행은 청년 통장개설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한다.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는 운영기관으로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적립유지, 만기축하 이자지원 등 사업비 집행과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MEMO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청년13(일+삶)통장  
우리 광주청년들의 광주에서의  
행복한 일과 삶을 응원합니다

## 청년13(일+삶)통장은 나에게 다

발행일 2020년 7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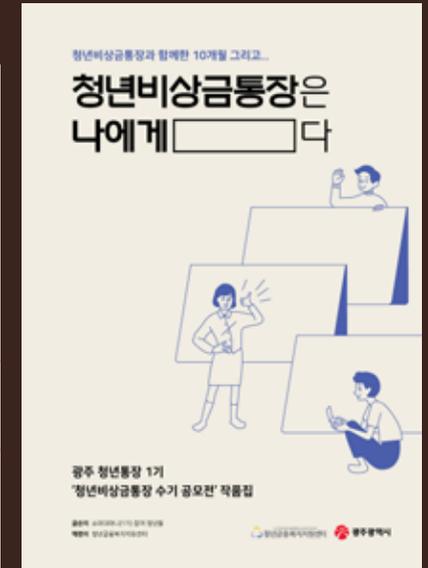
펴낸곳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디자인 디자인컴퍼니 바비샤인

전화 062.227.7079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 4강로 181번길 38 NJ community 빌딩 2층

도움주시는 곳    



# 제1회 청년3(일+삶)통장 수기공모전

청년13(일+삶)통장과 함께한 10개월 그리고..



## 청년3(일+삶)

통장은

나에게

이다

거울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
빛 한줄기	빛을 빛으로 만든 존재
기대	일상
오아시스	추억이 깃든 목돈이자 경제 입문로
행복	계획
Anything	디딤돌
피톤치드	페이스 메이커
생활 속 일상	한 줄기 따뜻한 햇살
효도	열려라 참깨!
새로운 시작	돛자리 없는 캠핑
8월의 크리스마스	밑거름
가뭄의 단비	인내심 업그레이드 극약 처방제
골조	첫 만기통장
꼭 필요한 과정	행복으로 가는 계단
도약	비타민
희망	기회
STORY	전환점
한줄기 빛이자 희망	20대의 새로운 목표를 부여해준 계기
연금 복권	첫 걸음
그늘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

# 1+3\*

# TALK! TALK!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후원 보해양조 광주은행